

정보 무늬(QR코드) 이용 시, 음성으로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보도시점: 2026. 1. 13.(화) 10:30 배포: 2026. 1. 13.(화) 08:30

“앞으로 부패 줄어들 것”... 반부패 정책 추진 성과에도 “효과 있다”

- 2025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부패수준 “현재보다 줄어들 것”
- 일반국민 57.6% “우리 사회 부패하다”...반부패 성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

- 2025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라는 인식이 대부분의 조사 대상에서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5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공정에 대한 인식, ▲정부의 반부패 정책추진 효과성 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사회 전반 및 공직사회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부패인식을 조사·분석해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대국민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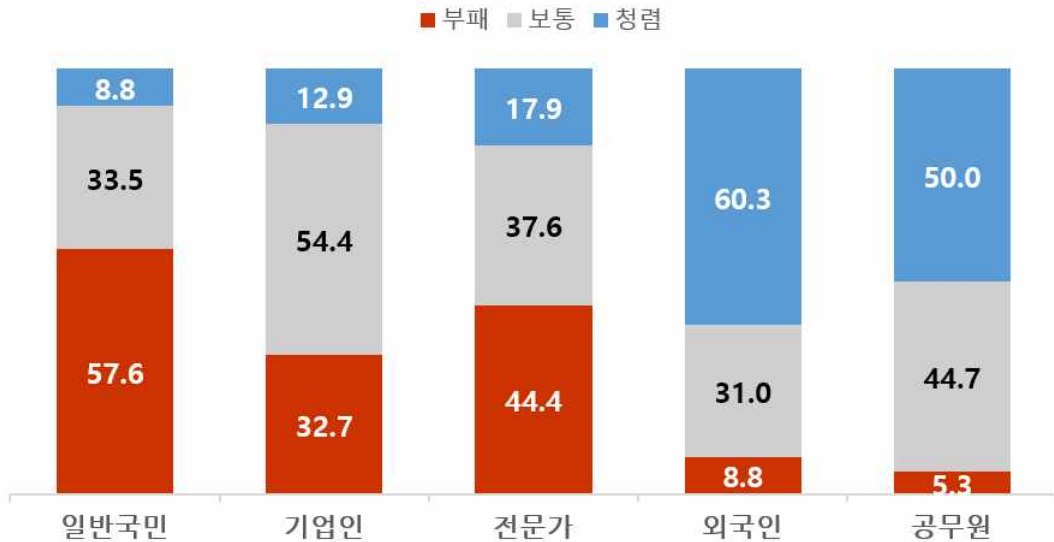
2025년도 조사는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일반국민(57.6%)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전문가(44.4%), 기업인(32.7%), 외국인(8.8%), 공무원(5.3%) 순으로 나타났다.

【 우리 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

(단위: %)



전년과 비교하면, 기업인(↓10.9%p), 전문가(↓9.4%p), 공무원(↓7.5%p), 외국인(↓5.7%p) 등 일반국민을 제외한 모든 조사 대상에서 우리 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이 개선됐다.

【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 응답률 】

(단위: %, %p)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2025년	57.6	32.7	44.4	8.8	5.3
2024년	57.1	43.6	53.8	14.5	12.8
전년 대비	↑0.5	↓10.9	↓9.4	↓5.7	↓7.5

- 11개 사회 분야별로는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은 ‘정당·입법’ 분야를, 기업인은 ‘언론’ 분야를, 외국인은 ‘종교단체’ 분야를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는 ‘교육’ 분야를, 외국인은 ‘문화·예술·체육’ 분야를, 공무원은 ‘행정기관’ 분야를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했다.

【 최근 3년간 사회 분야별 부패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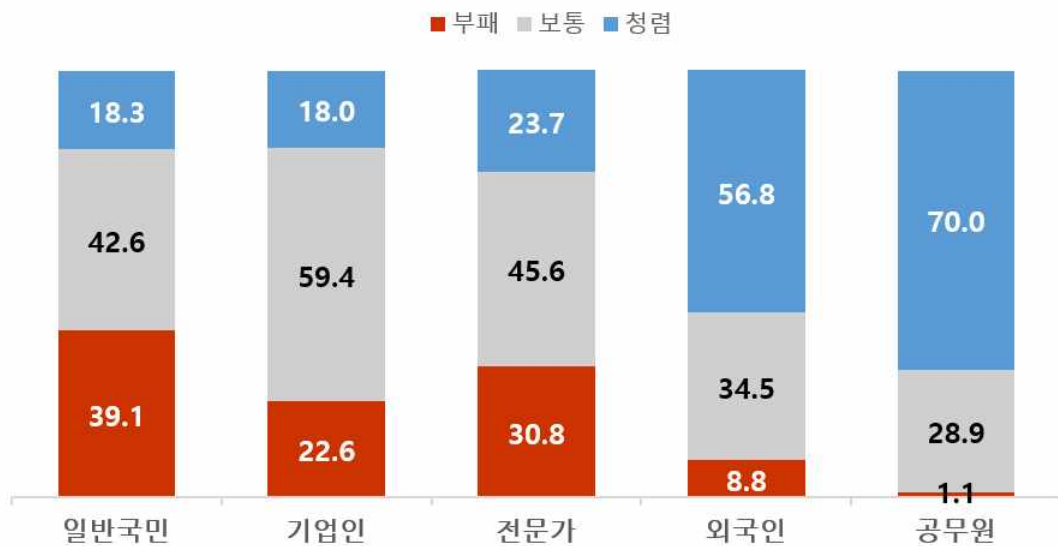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2025년	가장 부패	정당·입법	언론	정당·입법	종교단체	정당·입법
	가장 청렴	교육	교육	교육	문화·예술·체육	행정기관
2024년	가장 부패	정당·입법	정당·입법	정당·입법	정당·입법	언론
	가장 청렴	교육	교육	교육	시민단체	행정기관
2023년	가장 부패	정당·입법	정당·입법	정당·입법	종교단체	언론
	가장 청렴	교육	교육	교육	교육	행정기관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라고 인식하는 비율 또한, 일반국민(39.1%)이 가장 높고, 전문가(30.8%), 기업인(22.6%), 외국인(8.8%), 공무원(1.1%) 순으로 나타났다.

【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

(단위: %)



전년과 비교하면, 기업인(↓9.3%p), 외국인(↓5.4%p), 전문가(↓5.3%p), 공무원(↓2.0%p) 등 일반국민을 제외한 모든 조사 대상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이 개선됐으며, 특히, 공무원의 경우 1.1%로 가장 낮아 일반국민과 부패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일반국민은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비율이 소폭 증가하여 일반국민의 청렴 체감도 제고가 향후 반부패 정책의 핵심 과제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공직사회가 ‘부패하다’ 응답률 】 (단위: %, %p)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2025년	39.1	22.6	30.8	8.8	1.1
2024년	35.5	31.9	36.1	14.2	3.1
전년 대비	↑3.6	↓9.3	↓5.3	↓5.4	↓2.0

□ 11개 행정 분야별로는 일반국민, 기업인, 공무원은 ‘검찰·교정 등 법무’ 분야, 전문가는 ‘건설·주택·토지’ 분야를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모든 조사 대상에서 ‘소방’ 분야를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했다.

【 최근 3년간 행정 분야별 부패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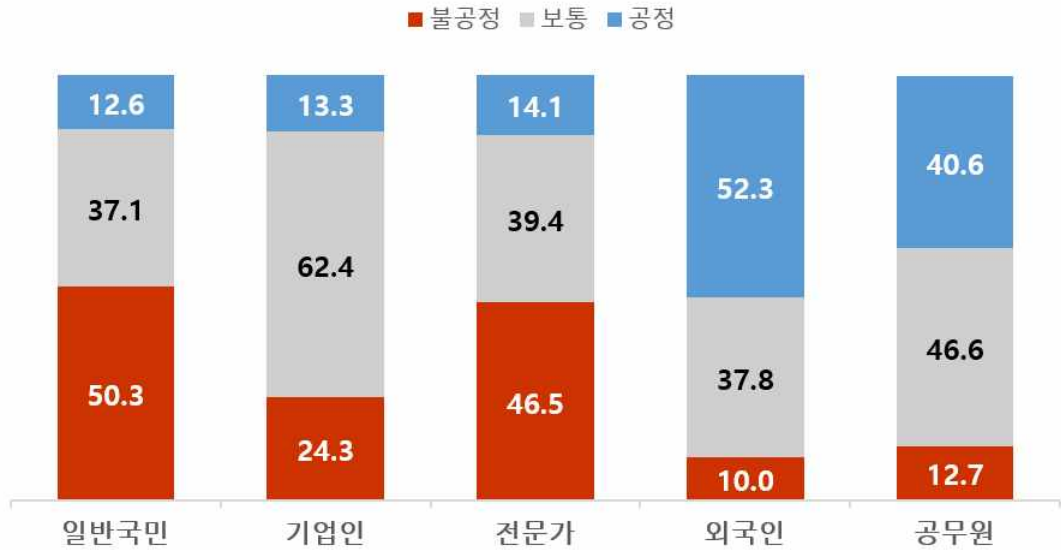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2025년	가장 부패	검찰·교정 등 법무	검찰·교정 등 법무	건설·주택·토지	검찰·교정 등 법무
	가장 청렴	소방	소방	소방	소방
2024년	가장 부패	건설·주택·토지	검찰·교정 등 법무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검찰·교정 등 법무
	가장 청렴	소방	소방	소방	소방
2023년	가장 부패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가장 청렴	소방	소방	소방	소방

공정에 대한 인식

□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일반국민(50.3%), 전문가(46.5%), 기업인(24.3%), 공무원(12.7%), 외국인(10.0%) 순으로 나타났다.

【 우리 사회에 대한 공정인식 】

(단위: %)



전년과 비교하면, 기업인(↓9.8%p), 공무원(↓9.1%p), 전문가(↓8.9%p), 외국인(↓4.0%p), 일반국민(↓1.5%p) 등 모든 조사 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라는 인식이 개선됐다.

【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 응답률 】

(단위: %, %p)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2025년	50.3	24.3	46.5	10.0	12.7
2024년	51.8	34.1	55.4	14.0	21.8
전년 대비	↓1.5	↓9.8	↓8.9	↓4.0	↓9.1

정부의 반부패 정책추진 효과성

-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모든 조사 대상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응답이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특히 기업인의 응답이 27.0%p 증가하여 정책추진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의 반부패 정책추진 효과성 】

(단위: %, ()는 전년 대비 %p)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효과가 있다	24.4(↑6.8)	47.1(↑27.0)	27.5(↑4.5)	44.5(↑19.5)	56.4(↑15.4)
효과가 없다	45.1(↓9.9)	10.9(↓34.0)	31.1(↓16.5)	9.8(↓4.5)	7.4(↓16.8)

아울러, 향후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 전망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모든 조사 대상에서 대폭 증가하여 청렴 사회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기대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 전망 】

(단위: %, ()는 전년 대비 %p)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현재보다 부패가 줄어든 것	39.6(↑14.7)	31.3(↑14.0)	41.0(↑19.5)	45.5(↑17.0)	52.9(↑12.5)
현재와 비슷할 것	31.5(↓10.2)	53.1(↓2.2)	40.3(↓3.2)	46.8(↓14.2)	42.1(↓5.6)
현재보다 부패가 늘어날 것	28.9(↓4.5)	15.6(↓11.8)	18.7(↓16.3)	7.8(↓2.7)	5.0(↓6.9)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추진으로 사회 전반에 청렴과 공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반국민의 부패인식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이 일상에서 반부패 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2025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담당 부서	청렴조사평가과	책임자	과 장	김지영 (044-200-7631)
		담당자	사무관	박세아 (044-200-7634)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패인식도 #종합청렴도 평가 #반부패